

신/년/사

새롭게 준비하는 한해가 되자



최 준 구 본회 회장

2006년도 대망의 병술년(丙戌年)이 밝았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기분입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10년동안 우리 양계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보면 1997년 IMF사태와 2003년 HPAI발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양계산업이 붕괴될 것 같았으나 우리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시 재기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05년은 희비가 엇갈렸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05년은 닭의 해인만큼 양계인들에게는 어느 해 못지 않은 뜻깊은 해로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 남산에서 새해맞이 닭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양계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양계산업의 새 활력을 불어넣었고, 1993년 이후 HPAI 어려움을 경험했던 우리 양계업계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속에 다시 재기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사상 초유의 양계산물 가격을 갱신하며 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HP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양계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모든 방송

및 언론매체에서도 마치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 무차별적인 방송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양축가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24일 여의도에서는 양계인 1,500여명이 모여 양계업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닭의해 새해 맞이 행사로 시작된 한 해가 HPAI사태에 따른 항의시위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에는 앞으로 몇 년동안 우리곁에서 계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직 질병전파 요인이 철새 이외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HPAI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회에서도 정부의 시예보 발령과 때를 맞추어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해 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외협력, 농가홍보, 소비대책, 수급조절팀을 구성하여 각 도지회, 시군지부와 연계하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회 및 가금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언론에서 “조류독감”으로 표기되던 용어를 시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양계업계의 경기 회복에 일조를 하고 있어 국내에 HP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외 차단 방역을 통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2006년에도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도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1일 정부 및 양계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에서 대대적인 소비홍보 캠페인을 기점으로 다시 양계산물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2006년도 양계산업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계협회를 포함한 가금관련 단체들은 20억 보험을 상품으로 내걸고 양계산물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제는 양계인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HPAI 뿐만 아니라 우리 양계업계는 양계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양계산업 안정화, 자조금사업 활성화,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 국제경쟁력 확보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양계인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산자들을 위시하여 관, 학, 연이 서로 한배를 탄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양계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원 및 양계인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년(丙戌年)은 개의 해입니다. 개는 1만2천~1만4천년전 유라시아에서 기원하여, 적어도 1만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올 정도로 인간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서로 협조하고,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 한해는 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협조하는 해가 되길 바라며,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고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계**